

“복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광주시 '광주형 평생주택' 발표 기존 공공임대와 어떻게 다르나

면적 넓어지고 소득기준 높아져...임대기간도 차별화

광주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집값 문제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26일 혁신모델로 내놓은 '광주형 평생주택'과 종전 공공임대는 크게 10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 공공임대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었다면 광주형 평생주택은 중형 공공임대 방식이다.

공급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광주시 거주 1년 이상)'로 범위를 넓혔다. 전용면적 역시 기존 소형(60㎡ 이하) 평형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가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100%인 반면 광주형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액수로는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30~80%이던 것을 60~90%로 조정하되, 임대 기간은 5~50년인 기존 임대방식과 달리 최단 기간을 30년으로 잡아 사실상 평생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지도 외곽 택지개발단지 등에 들어서던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도심 내 핵심지역으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 대상  
전용면적 중형(85㎡ 이하)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대폭 완화  
임대료 내리고 기간은 최단 30년**

방향을 틀었다.

특히, 입주 예정 6개월전인 입주자 모집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전, 즉 기본계획 수립 후로 앞당겨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민자치회를 결성해 설계부터 입주 후 아파트 관리·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

가 맞춤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행정적 의지로 앞선다.

단지 조성도 차별화했다. 설계 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상자형 아파트'에서 벗어나 우수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높이고, 그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는 '소셜 믹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제로에너지는 기본이다.

특화시설도 사회복지관 등 법정시설 위주에서 탈피, 도심 내 생활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성한다는 게 기본적 밑그림이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소위 '아파트 소림'과 '1~2인 가구 급증' 등 투기 수요와 신규 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월세 부담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준"이라며 "광주형 평생주택이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가 집 걱정 없이 살아가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26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중학교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첫 교내 감염' 등 확산세에 교육계 '비상'

수능 일주일 앞두고 광주 학생 13명·전남 15명 확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안전한 수능 환경 조성 최선"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에서 첫 교내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이 잇따르고 있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13명이다. 교직원(유치원)은 1명이다.

학교별로는 유치원생 3명, 초등학생 3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방통고 2명 포함)이다.

교내 감염 첫 사례도 확인됐다. 서구 모 중학교 학생이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학생의 같은 반 친구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은 교내 전수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광주에서만 4099명의 학생과 518명의 교직원이 학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전남 지역도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남에서는 14개교 학생 15명과 교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교별로는 유치원생 2명,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이다.

지난 25일 기준 고 3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수험생 42명이 자가 격리된 상태다.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안전한 수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안전한 수능 시험을 위해 시험장도 일반시험장·별도 시험장·병원시험장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날부터는 수험장 책상 칸막이 설치에 들어갔다.

또 지역 내 임시학원들의 방역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수능 시험일 다음날인 오는 12월4일에는 시험장 특별 방역에 나선다.

대규모 인원이 찾은 시험장에 대한 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 방역 당일 필수 요원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 다중 이용시설·소모임·친인척 간 교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시·도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광주 646명·전남 382명이다.

조인호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 신안군, 1980년대 왕새우 양식 이후 생산고 첫 600억 달성

국내시장 수급 물량 부족해 전년도 비해 가격 높아 소득 ↑

신안군은 지난 1980년대부터 왕새우 양식을 시작한 이후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억원(4200t 생산)의 생산고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올 해에는 저수온과 새우종묘 수급문제로 입식시기가 다소 늦고, 입식초기 산발적인 폐사로 작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부 양식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년작을 웃돌고 있다.

특히 다른지역의 대량폐사와 병동새우 수입물량 감소 등으로 국내시장 수급 물량이 부족해 전년도에 비해 새우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도 높은 생산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신안군의 새우양식은 272어가(338개소, 894ha)로 지난해 기준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새우는 최단 기간(5~6개월 소요)의 양식종류이다 보니 어업인은 물론 귀어자들로 부터 선호도가 가장 높다.

신안군은 민선7기 들어 새우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새우양식 전문인력 육성, 양식사료·기자재 공동구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종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들의 비용 절감을 비롯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안정적인 양식경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왕새우양식 사상 최고의 생산고를 올렸다"면서 "왕새우 주산지로서 행정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